

구미시 수출 200억 달러 달성 기념행사 연설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미시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룬 쾌거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구미시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이 어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밤낮 없이 연구하고, 일하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뛰어다니는 땀과 눈물의 결실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수 침체와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우리 경제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하나둘 걷혀 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올해에는 수출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출 4천억 달러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만 갖추면 세계 어디든지 우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이 만든 휴대폰이 세계인의 격찬 속에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구미가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든 제품의 경쟁력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

지금은 지역 스스로 혁신을 주도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으로부터 성장의 동력을 얻어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질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소를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고 무엇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지자체, 대학,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 등 5대 주체가 협력해서 비전을 세우고 역량을 키워나갈 때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은 지방화의 선두주자답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보고도 아주 좋았습니다. 경상북도의 혁신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미의 모범적인 노사협력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바이어들과 해외투자자들이 앞다투어 구미를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인 대구·경북지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갈 것입니다. 일본은 물론 중국의 동북3성, 극동러시아, 북한과의 교류거점으로서, 또한 디지털 IT산업과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해상물류거점으로서 포항신항만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첨단 신산업지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종합역사 건립과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의 조성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낙동강 모랫벌을 일구어서 200억 달러 수출의 금자탑을 이룬 여러분입니다. 이 역량과 노력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출 4천억 달러 시대를 함께 열어 갑시다.

다시 한번 구미시의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축하드리며, 구미시와 대구·경북지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